

오르비클래스(<https://class.orbi.kr/>)

1타 같은 N타

Zola 생윤 2

-선지의 모든 것-

오르비 인강 교재(<https://class.orbi.kr/>)

교재 목차

구분	회	주제	쪽
문제 모음	1	<동양 윤리> 선지의 모든 것	3
	2	<공리주의> 선지의 모든 것	16
	3	<칸트> 선지의 모든 것	25
	4	<분배 정의 1> 선지의 모든 것	35
	5	<분배 정의 2> 선지의 모든 것	46
	6	<교정 정의> 선지의 모든 것	61
	7	<사회계약론> 선지의 모든 것	71
	8	<시민불복종> 선지의 모든 것	106
	9	<세계평화(칸트, 갈통, 모겐소)> 선지의 모든 것	120
	10	<해외원조(싱어, 룰스)> 선지의 모든 것	129
	11	<환경 윤리> 선지의 모든 것	139
	12	<9평> 선지의 모든 것	별도 제공

정답 및 간략 해설은 매 회 뒤에 있습니다. 해설에서는 유사한 선지나 관련 자료, 유사성 높은 기출 및 ebs 문제들을 실어 두었으니 해설도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생운 2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Zola 생운 1-개념의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능 직전에 구매하셔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1. ebs는 출간 년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예) 23 ebs 수완 ⇒ 23년에 출간된(24학년도용) ebs 수능 완성

2. 지난 ebs의 경우에는 ebs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문제의 경우에는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단, 올해의 경우에는 ebs 출처만 밝히든가 혹은 답은 생략하였습니다.)

3. 올해 ebs의 몇 쪽 몇 번을 확인하라고 할 때는 문제의 선지뿐만 아니라 제시문, 그리고 해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해설에 나오는 ‘자료 교재’는 개념 강의[Zola 생운 1] 교재입니다.

교재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class.orbi.kr/teacher/164/notice/79712>

1강

<동양 윤리(자연관/인간관)> 선지의 모든 것

일단 바나나 제거!!

[Zola 생윤 1] 강의 일부

- ▶ 2강 동양 윤리+자연관 (1) 전체 들과 바나나 제거
- ▶ 3강 동양 윤리+자연관 (2)
- ▶ 4강 동양 윤리+자연관 (3)
- ▶ 5강 동양 윤리+자연관 (4)

1)[14-9-12] (가), (나)는 동양 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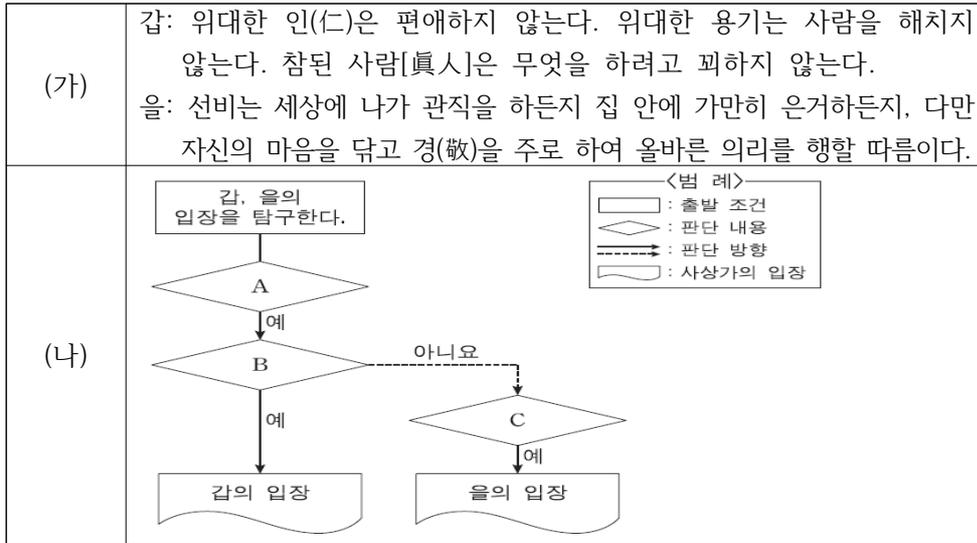
오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가) 인드라마는 끝없이 큰 그물로서 이음새마다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이 자리 잡고 있다. 구슬들은 혼자 빛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구슬의 빛을 받아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나)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커다란 폴무*의 바람통처럼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다.
*대장간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보기>

- ㄱ. (가)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 ㄴ. (나)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 ㄷ.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 ㄹ. (가)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를, (나)는 합일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기>

- ㄱ. A: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한가?
- ㄴ. A: 타고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ㄷ. A: 수양을 통해 타고난 덕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 ㄹ. B: 무위와 무욕을 통해 순전한 본성을 확충해야 하는가?
- ㅁ. C: 군자의 본성이 소인의 본성과 다름을 알아야 하는가?

㉞확인 테스트] 유도불 모두 긍정할 수 있는 선지를 있는 대로 골라보셈.

- 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② 누구나 수양을 하면 이상적인 인간[성인]이 될 수 있다.
- ③ 이상적인 인간[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수양해야 한다.
- ④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 ⑤ 수양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교재 10쪽

[교과서 읽기, 금성]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

서구 중심의 기계론적 자연관(Zola: 기계론적 자연관은 서양의 환경 윤리[교재 번호 4-3]에서 다룸)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동양의 사유 방식들이 주목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기체적 세계관이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과 사람을 떼어 놓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랜 농경 사회의 경험에서 온 것이다. 농사꾼이 자신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 모두를 올 한 해 동안 다 얻어내겠다고 생각했다간 내년부터 당장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서 이익을 뺏어 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땅에서 수확을 얻으면서도 다시 그 땅에 거름을 주는 방식이 땅과 사람이 함께 사는 방식이다.

이처럼 사람은 자연과의 어울림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자연을 대상화하기보다는 자연을 닮으려고 하였다. 이것이 철학에서 추구해 온 자연과 하나 됨, 즉 '천인합일'이었다. 그래서 유가는 자연법칙을 도덕법칙으로 끌어들이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와 그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추구하였고, 도가는 인간 중심의 가치론적 판단을 버리고 내 몸과 자연이 하나로 만나는 존재론적 합일을 추구하였다.

[교과서 읽기, 천재] 동양 윤리의 의의

욕망의 충족을 위한 과도한 경쟁에 대하여 동양 윤리적 사고는 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이러한 태도는 생명 존중이나 자연과의 조화에도 연결되는데, 불교의 불살생(不殺生)과 명상, 도가의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 유교의 검소한 생활 방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도·불 모두가 인간과 자연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동양 윤리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수양과 수행을 통한 개인의 인격 완성을 강조하고, 이상적 인간과 이상 사회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모색한다.

■유기체적 세계관: 이 세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는 세계관으로 개개의 생명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참고]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동양 윤리 사상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호 의존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적 전체로 이해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이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동양의 자연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자연관이 형성되었다.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동양의 사회관에서도 개인을 중심에 두는 개체적 관점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다.

◆유가◆

개념 구조

- 4) 자연관(세계관, 우주관)
- 5) 본성론
- 6)~9) 수양론, 이상적 인간
- 10)~12) 이상 사회

※ OX를 판단하시오.(주어가 불확실하면 공자와 맹자의 유가에 한정해서 푸세용~)

4)하늘은 (1)도덕적 존재(OX)로서, (2)만물을 주재(主宰)한다(OX). 그러나 (3)명령하지는 않는다(OX).

5)(맹자) 사단을 확충해야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6)군자의 사랑에는 차례가 있다.

7)어진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8)인간은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태도를 바탕으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

9)선비는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정치를 이상으로 여긴다.

10)유가는 통치 수단으로 형벌을 인정하지 않으며 도덕과 예의를 강조한다.

11)(맹자)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의 교체는 정당하다고 본다.

12)대동사회의 구성원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기타 사상가]

13)유가는 묵가와 달리 의로움을 추구한다.

14)묵가는 유가와 달리 이로우미 곧 의로우미라고 본다.

15)순자는 예[또는 음악]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16)한비자(법가)는 법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도가◆

개념 구조

- 17)~18) 자연관(세계관, 우주관)
- 19) 본성론
- 20)~21) 잘못된 원인(도덕관)
- 22)~24) 수양론, 이상적 인간

※ OX를 판단하시오.

17)자연은 목적이 있는 무위의 체계이다.

18)인간의 관점이 아닌 사물[物]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

19)모든 인간의

본성은 같으며 OX

편을 가르지 않는다. OX

20)인간은 자연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21)(장자) 미추의 구분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자 OX

상대적인 관점이다. OX

22)옳음과 그름은 각각 서로에게서 기인된 것이다.

23)(노자)만물을 이롭게 해주는 최상의 선을 실천해야 한다.

24)유가와 달리 도가는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 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확장]

25)이상적 인간은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난다.

26)도가는 유가(맹자)와 달리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7)유가(맹자)는 도가와 달리 타고난 도덕적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가◆

개념 구조

28)~30) 자연관(세계관, 우주관)

31) 본성론

32)~35) 수양론, 이상적 인간

※ OX를 판단하시오.

28) 모든 현상에는 불변하는 실체는 없으나 실체는 있다.

29) 생명이 있는 것은 연기(緣起)에 의해 있는 것이다.

30)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31) 불성을 생성하기 위해 바라밀을 실천한다.

32)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제시한 집성제를 실천해야 한다.

33) 상(相)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34) 무아(無我)를 자각하여 삶이 무상(無常)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35) 불가와 유가 모두 사랑의 실천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을 강조한다.

[확장]

36) (1)불가는 삶과 죽음의 순환은 의도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OX), (2)도가는 삶과 죽음의 순환은 의도적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본다(OX).

37) 죽음은 태어남이라는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38) 무상한 모든 생명은 오온의 해체인 죽음 이후에 변화를 멈춘다.

OX

OX

OX

[제시문 연습] 제시문을 보고 해당하는 동양 사상(가)를 쓰시오. 유도불 아닌 사상가도 포함될 수 있음.

39)세상에는 두 극단이 있다. 두 극단 중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쾌락으로 빠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것이다. 이 두 극단을 넘어서면 바른길[中道]가 있다.

40)성인은 금수초목을 아끼지만 인애(仁愛)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親愛)하지는 않는다. 성인은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금수초목을 사랑한다.

41)최상의 덕은 함이 없음으로 하지 못함이 없다. 인(仁)은 함이 있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의(義)는 함이 있되 무엇을 위하여 한다. 예(禮)는 함이 있되 따르지 않으면 억지로 끌어당긴다.

42)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통치이다. 하늘은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바란다. 혼란은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일어난다. 신하는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43)천지는 나와 함께 태어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다.

1강 동양 윤리 zola amazing 답

1) ①

2) 답 ㄱ, ㄴ. ㄷ 사설+ebs 활용

갑-장자(도가), 23 ebs 수완 10쪽 확인!

을-이황(유가), 23 ebs 수완 5쪽 자료 확인!

사상(도가와 유가)으로 접근하면 됨. 동양 사상 기본 지식(2-1)과 관련되는 부분임.

ㄱ. 0

수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상가는 없음. 바나나 선지라고 보면 됨.

ㄴ. 0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은 공통점. 단 유가의 순자는 조심할 것.

ㄷ. 0

22 ebs 수완 15쪽 7번(밑에 문제 있음)

ㄹ. X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함. 짬뽕형 선지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한 선지임.

ㅁ. X

동양 사상 기본 지식.

23 ebs 수완 14쪽 5번 ③ 확인. 올해 수완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산(牛山)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도끼로 베어 버려 민둥산이 되었다. 사람에게도 인의(仁義)의 마음이 있었지만 도끼로 나무를 베듯 잘라 내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본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면 야기(夜氣)*조차 보존하기 어렵다. 야기조차 보존할 수 없으면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만약 제대로만 기른다면 자라지 않을 것이 없게 되고, 제대로 기르지 못한다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 야기(夜氣): 한밤에 자라는 좋은 기운

<사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초대받은 A는 같은 음식을 판매하는 유명 식당 분점이 인근에 들어와 친구의 장사가 잘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A에게 포털 사이트의 음식점 후기 게시판에 그 식당의 음식 맛을 폄하하는 글을 올려 달라고 부탁을 했고, A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인간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므로 친구가 본성을 교화하여 선하게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 ② 거짓말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형성하여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 ③ 일반 사람의 본성과 성인(聖人)의 본성이 다르므로 성인의 본성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 ④ 선한 사람은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사랑하므로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세요.
- ⑤ 친구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익보다 의로움[義]을 우선하는 것이 도(道)에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참고] 22 ebs 수완 15쪽 7번. 직접 풀어보셈!!

자료와 친해지기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의 견해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은 마치 그에게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 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자이다. 그 임금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네 가지 단서가 나에게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전부 확충할 줄 안다면 마치 불이 막 일어나듯 하고 샘이 비로소 흘러내리듯 할 것이다. 확충할 수 있다면 세상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확충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조차 섬기지 못할 것이다.

- '맹자', '공손추 상'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로 사단을 제시하였다. 사단은 타고난 마음으로 인간의 본심이며, 잠재성을 지닌 것이다. 맹자는 인의예지의 사덕을 본성으로 보았으며,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사덕이 발현된다고 보았다. 맹자는 통치자가 인의의 본성을 바탕으로 다스릴 때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6) O

23 ebs 수록 126쪽 자료 플러스(비상교육 교과서 자료임) 확인!

[비상교육] 성인은 금수초목을 아끼지만 인애(仁愛)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親愛)하지는 않는다. 성인은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금수초목을 사랑한다.

7) X [ebs 수록/수완에 여러 차례 나온 내용임. 아래 글 참고하면 됨]

[참고] 공자는 늘 인을 강조하였는데, 인은 곧 포용이요 사랑이다. 그러나 과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고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일까? '중용'을 보면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개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좋아하고 미워함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어진 사람은 어떤 감정에 일어나더라도 박애의 마음은 유지하므로, 역으로 사람을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자연인 한 사람 자체보다는 그 덕행과 잘못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어, 소위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격이 된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란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남의 단점을 말하는 자와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자와 용맹하지만 예의가 없는 자, 과감한 듯 하면서 사람의 숨통을 죄는 자를 미워한다고 대답하였다. 네 가지 모두 우리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흔히 저지르는 행위들이다. 남의 흠을 말하길 좋아하는 것은 상대도 해롭고 기분 나쁘지만, 그 자신도 해치게 된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아랫사람이 되어 윗사람의 흠을 보고 헐뜯는 것은 면從복배(面從腹背)의 전형이며, 용감하게 설치면서 무례한 사람도 사람들의 이마를 찌푸리게 한다. 그리고 과감한 듯 행동하지만 남의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독선을 군자는 미워한다. 사회에는 화합과 배려, 절제와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은근하면서도 심하게 해치기 때문이다. <양화편>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8) O

[금성출판사] 안빈낙도(安貧樂道):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키며 즐기는 것

9) O

→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함.

10) X

[참고, 윤사, 16-6-4] (유가) 형벌은 예약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000

11) O

12) X

자료 교재 11쪽. 없는 분은 아래 확인!

■ 대동 사회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서, 노인에게는 그 생애를 편안하게 마치게 해 주며, 장자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며, 어린아이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며, 과부와 고아, 장애인 등에게는 고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성년 남자에게는 걸맞은 직분을 주며, 여자에게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 준다. 재화라는 것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지 않으며,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모략이 있을 수 없으며, 절도나 폭력도 없으며, 아무도 문을 잠그는 일이 없다. 이러한 세계를 '대동(大同)'이라 한다. - 『예기』-

- 13) X
- 14) O
- 15) O

[22-9-18]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先王)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 16) X
- 17) X
- 18) X

[참고] 도와 일체가 되면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볼 수 있다. 이를 이도관지(以道觀之)라고 한다. 물(物)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자기는 귀하고 상대방은 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만물을 평등하게 볼 수 있다.

19) 본성은 같으며 000, 편을 가르지 않는다. 000

[도가, 장자]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본성이 있다. 베짜서 옷 해 입고, 밭 갈아 밥을 먹으니, 이것을 두고 본성이 같다고 한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한결 같아서 편을 가르지 않으니, 이것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이다.

20) X

[천재], [자료 교재 13쪽]

인간도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 속의 존재이므로 인간과 자연은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인간에게는 자연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도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당시의 위정자나 사상가들을 인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도교에서는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일을 위해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심재(心齋)], 조용히 앉아서 시비 분별을 잊어야 함[좌망(坐忘)]을 제시한다. 이러한 수양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사회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노닐 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소요유(逍遙遊)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

21) 미추의 구분은 (1)'인간 중심적'이자000 (2)'상대적'이다. 000

22) O

23) O

23 ebs 수특 25쪽 4번 확인!

24) X

23 ebs 수완 13쪽 3번 확인!

25) X

23 ebs 수특 43쪽 6번 확인!

진인: 참된 사람, 지인: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

26) X

27) O

28) X

실체=불변=고정=일정한 것

29) O

30) O

31) X

32) X

자료 교재 14쪽 또는 아래 확인!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스스로의 덕을 소중히 품고 화합의 마음을 키우며 천지자연을 따르는 자를 진인(眞人)이라고 한다. 눈에 비치는 대로 사물을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되 본심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자는 그 마음이 무심하여 밧줄처럼 평탄하고 그 변화는 모두 자연을 따르고 있어서 사물에 거역하는 일이 없다.
- (나) 군자는 만물(萬物)을 아끼지만 인애(仁愛)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親愛)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만물을 사랑한다.

- ① (가)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을 으뜸으로 본다.
- ② (가)는 인간이 인의(仁義)를 중시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 ③ (나)는 자연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간과 동일하게 인애(仁愛)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천인합일을 중시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인간과 자연적 존재들 간의 위계를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문제 분석 (가)는 도가의 자연관, (나)는 유교의 자연관이다. 도가에서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존재의 근본 원리로서 도(道)를 제시하며, 도의 원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지만 인간과 자연 존재 간의 도덕적 고려에서 분별적 차이를 두고 있다.

정답 찾기 ④ 유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추구하면서 인간을 기본적으로 천지(天地)와 더불어 화해와 조화를 지향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오답 피하기 ① 불살생의 계율을 중시하는 것은 불교의 입장이다.
 ② 도가에서는 인의(仁義)를 중시하지 않으며,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유교에서는 군자는 동식물을 사랑하지만, 인간과 동일하게 인애(仁愛)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41) 도가(노자)
 ebs 모의고사 제시문

42) 묵가
 겸(상)애, 교(상)리가 (1) 님들 머리에 있고, (2) 그 의미도 님들 머리에 있으며, (3) 제시문에서 그것이 보여야 함.
 (1)~(3)이 순서대로 그리고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함!

43) 도가(장자)
 도가와 유가의 구분 point를 모르면 나중에 유가랑 zola 헷갈릴 수 있음. 강의 필독!!!
 혹은 개념 강의(Zola 생운 1) 도가 부분 꼭 들으셈!!!